

치위생과 실습실 내원환자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유무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

남상미

삼육보건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and oral health status of patients in 'S' university dental clinic

Sang-Mi Nam

Dept. of Dental Hygiene, Sahmyook Health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oral health state of patients in S university dental clinic.

Methods : The subject in this were 261 patients who got a scaling at the oral hygiene practice lab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in S university dental clinic from April 1 to May 31, 2010. For the data analysis, an SPSS WIN 11.5 program was used and its signification level was 0.05.

Results : 1. For the oral health state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it showed the men's 0.78 MT index was higher than women's 0.48 MT index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2. For FT index, women(4.72) was higher than men(3.50) and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 < 0.05$). 3. For the oral health state according to sex distinction, Why not use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 < 0.05$). 4. For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according to age distinction, 18.5% more than 30 years replied as I use interdental brush and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18.5% more than 30 years replied as I use powered brush and i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p < 0.05$). 5. For the oral health state according to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distinction,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that dental floss, interdental brush, mouth rinse product, Why not use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p < 0.05$).

Conclusion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lower than the utiliz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Therefore, to increase the use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to patients of the appropriate selection and correct usage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and the resulting effects have sufficient training to practice more efficiently should be.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 ; 11(3) : 373-381)

Keywords :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FT index, MT index, oral health state

색인 : 구강건강상태, 구강위생보조용품, FT index, MT index

1. 서론

경제성장과 보건학의 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¹⁾. 이러한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상태로 구강건강 또한 단순히 구강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생활에서 편안히 살아가 수 있는 치아와 악안면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하며 전신건강을 위해서 구강건강은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²⁾.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조사에 의하면 신체의 건강 중 구강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구강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연구조사되었다³⁾. 정 등⁴⁾은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보건지식과 견해를 조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구강질환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발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구강질환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다⁵⁾.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치면세균막 관리가 중요하며, 구강위생관리 목적은 구강병의 발생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다. 구강내 치면세균막을 조절하는 데는 잇솔질이 가장 효율적이거나, 잇솔질만으로는 완벽한 관리를 할 수 없고, 환자에 따라서는 각 개인에 적합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치면세균막 관리는 물론 치간청결이나 치은 마사지들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⁶⁾. Tani⁷⁾는 성인의 치주 질환 인식도 조사에서 칫솔질과 치실 사용에 의해 약 60.8%의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구강건강증진행위란 구강내 질환이 발생하기 전의 건강한 구강상태에서 구강을 계속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제반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강병의 증상이나 증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특징을 지니므로 그 행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⁸⁾.

계속구강건강관리는 환자를 일정한 주기로 내원시켜 필요한 모든 예방처치 및 구강병을 치료하여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계

속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사, 치면세마, 올바른 잇솔질, 식이조절,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 등이 필요하다⁹⁾.

본 연구는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유무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향후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을 권장하여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서울지역에 소재한 S대학 치면세마 실습실에 2010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방적 치석제거를 위하여 방문한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구강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구강검사는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3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320부를 회수하여 100%의 회수율을 보였고 그 중 기재가 누락되거나 미흡하게 대답하여 결과분석이 곤란한 설문지 59부를 제외하고 261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도구로는 김¹⁰⁾의 선행연구에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실태에 대한 항목을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내용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강건강상태,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와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는 t-test(검증)와 일원배치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3. 연구성적

3.1. 일반적 특성

성별 분포는 남자 74명(28.4%), 여자 187명(71.6%)이었다. 연령분포는 만 20세 미만 9명(3.4%), 만 20~29세 196명(75.1%), 만 30세 이상 56명(21.5%)으로 나타났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는 우식지수(DT index)에서 남자 1.74, 여자 1.76으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식경험상실지수(MT index)는 남자 0.78, 여자 0.48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P<.05$). 우식경험치치지수(FT index)는 남자 3.50, 여자 4.72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P

$<.05$).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는 남자 6.03, 여자 6.95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는 우식지수(DT index)에서 만 20세 미만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0세 이상 1.75, 만 20~30세 1.53 순으로 나타났다($P<.05$). 우식경험상실지수(MT index)는 만 20세 미만 0.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0세 이상 0.75, 만 20~30세 0.50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우식경험치치지수(FT index)는 만 20~30세 4.44, 만 30세 이상 4.23, 만 20세 미만 3.67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는 만 30세 이상 7.41, 만 20세 미만 6.89, 만 20~30세 6.47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N)	(%)
Sex	Male	74	28.4
	Female	187	71.6
Age	Under 20	9	3.4
	20~under 30	196	75.1
	More than 30	56	21.5
Total		261	100

Table 2. Oral health statu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Oral health status [†]			
		DT index	MT index	FT index	DMFT index
Sex	Male(N=74)	1.74±2.40	0.78±1.65	3.50±2.99	6.03±3.76
	Female(N=187)	1.76±2.25	0.48±1.10	4.72±3.71	6.95±4.19
	p-value	.413	.004*	.032*	.311
Age	Under 20(N=9)	2.44±2.35	0.78±1.39	3.67±2.50	6.89±3.92
	20~under 30(N=196)	1.53±2.06	0.50±1.31	4.44±4.47	6.47±3.93
	More than 30(N=56)	1.75±2.28	0.75±1.18	4.23±4.01	7.41±4.62
	p-value	.022**	.389	.772	.317

[†] : M±S.D

* p-value is calculated with t-test ($p<.05$)

** p-value is calculated with one way ANOVA($p<.05$)

Table 3.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by sex

Division			Sex		Total	χ^2 -value
			Male	Female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Dental floss	Yes	11(14.9)	54(28.9)	65(24.9)	5.568
		No	62(83.8)	131(70.1)	193(73.9)	p=.062
	Interdental brush	Yes	3(4.1)	23(12.3)	26(10.0)	4.470
		No	71(95.9)	163(87.2)	234(89.7)	p=.107
	Mouth rinse product	Yes	13(17.6)	51(27.3)	64(24.5)	3.173
		No	61(82.4)	135(72.2)	196(75.1)	p=.205
	Tongue brush	Yes	5(6.8)	32(17.1)	37(14.2)	5.142
		No	69(93.2)	154(82.4)	223(85.4)	p=.076
	Powered brush	Yes	7(9.5)	18(9.6)	25(9.6)	0.400
		No	67(90.5)	168(89.8)	235(90.0)	p=.819
	Waterpik	Yes	1(1.4)	3(1.6)	4(1.5)	0.421
		No	73(98.6)	183(97.9)	256(98.1)	p=.810
Why not use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You do not know the proper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39(52.7)	69(36.9)	108(41.4)	12.404
	Perhaps because of discomfort		27(36.5)	99(52.9)	126(48.3)	p=.030*
	Difficult and expensive to purchase		5(6.8)	3(1.6)	8(3.1)	
	We do not have the effect		2(2.7)	9(4.8)	11(4.2)	
	It is not recommended		1(1.4)	6(3.2)	7(2.7)	
	The others		0(0.0)	1(0.5)	1(0.4)	

* p<0.0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실태

3.3.1.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실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는가에서 한다가 치실은 여자 54명(28.9%), 남자 11명(14.9%)순으로 나타났고, 치간치솔은 여자 23명(12.3%), 남자 3명(4.1%), 구강양치용액 여자 51명(27.3%), 남자 13명(17.6%), 혀 세척기는 여자 32명(17.1%), 남자 5명(6.8%), 전동칫솔은 여자 18명(9.6%), 남자 7명(9.5%), 워터픽은 여자 3명(1.6%), 남자 1명(1.4%)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보조용품 사용 순위는 치실이 65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구강양치용액 64명(24.5%), 혀 세척기 37명(14.2%), 치간치솔 26명(10.0%), 전동칫솔 25명(9.6%), 워터픽 4명(1.5%)순으

로 나타났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남자는 ‘적절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몰라서’가 39명(52.7%), 여자는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99명(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

3.3.2. 연령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실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는가에서 ‘한다’는 모두 만 3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다. 만 30세 이상에서 구강양치용액 19명(35.2%), 치실 15명(27.8%), 치간치솔 10명(18.5%), 혀 세척기 10명(18.5%), 전동칫솔 10명(18.5%), 워터픽 2명(3.7%)순으로 나타났다. 치간치솔 사용은 ‘사용한다’가 만 30세 이상에서 10명(18.5%), 만 20~30세 16명(8.2%), 만 20세 미만 0명(0.0%)순으로 나타났으며, ‘안 한다’가 만 20세 미만 9명

Table 4.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by age

Division			Age			Total	χ^2 -value
			Under 20	20~under 30	More than 30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Dental floss	Yes	2(22.2)	46(23.5)	15(27.8)	63(24.3)	0.864 p=.930
		No	7(77.8)	148(75.5)	38(70.4)	193(74.5)	
	Interdental brush	Yes	0(0.0)	16(8.2)	10(18.5)	26(10.0)	10.072 p=.039*
		No	9(100.0)	180(91.8)	43(79.6)	232(89.6)	
	Mouth rinse product	Yes	3(33.3)	42(21.4)	19(35.2)	64(24.7)	8.781 p=.067
		No	6(66.7)	154(78.6)	34(63.0)	194(74.9)	
	Tongue brush	Yes	1(11.1)	26(13.3)	10(18.5)	37(14.3)	4.944 p=.293
		No	8(88.9)	170(86.7)	43(79.6)	221(85.3)	
	Powered brush	Yes	0(0.0)	15(7.7)	10(18.5)	25(9.7)	10.740 p=.030*
		No	9(100.0)	181(92.3)	43(79.6)	233(90.0)	
	Waterpik	Yes	0(0.0)	2(1.0)	2(3.7)	4(1.5)	6.006 p=.199
		No	9(100.0)	194(99.0)	51(94.4)	254(98.1)	
Why not use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You do not know the proper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5(55.6)	82(41.8)	20(37.0)	107(41.3)	6.911 p=.734
	Perhaps because of discomfort		3(33.3)	92(46.9)	31(57.4)	126(48.6)	
	Difficult and expensive to purchase		0(0.0)	7(3.6)	0(0.0)	7(2.7)	
	We do not have the effect		1(11.1)	9(4.6)	1(1.9)	11(4.2)	
	It is not recommended		0(0.0)	5(2.6)	2(3.7)	7(2.7)	
	The others		0(0.0)	1(0.5)	0(0.0)	1(0.4)	

* p<0.05

(100.0%), 만 20~30세 180명(91.8%), 만 30세 이상에서 42명(79.6%)순으로 나타났다(p<.05). 전동칫솔은 ‘사용한다’가 만 30세 이상에서 10명(18.5%), 만 20~30세 15명(7.7%), 만 20세 미만 0명(0.0%)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안 한다’가 만 20세 미만 9명(100.0%), 만 20~30세 181명(92.3%), 만 30세 이상 43명(79.6%)순으로 나타났다(p<.05).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만 20세 미만은 ‘적절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몰라서’가 5명(55.6%)으로 가장 높았고, 만 20~30세는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92명(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30세 이상은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31명(57.4%)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3.4.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 상태

치실을사용하는가에서 우식경험상실지수(MT index)는 ‘한다’ 0.83, ‘안 한다’ 0.48로 ‘한다’가 높게 나타났다(p<.05), 우식지수(DT index)는 ‘한다’ 1.72, ‘안 한다’ 1.78, 우식경험치치지수(FT index)는 ‘한다’ 5.17, ‘안 한다’ 4.15, 우식경험영구치치수(DMFT index)는 ‘한다’ 7.72, ‘안 한다’ 6.4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간칫솔을 사용하는가에서 우식지수(DT index)는 ‘한다’ 2.12, ‘안 한다’ 1.72로 ‘한다’가 높았으며(p<.05), 우식경험상실지수(MT index)는 ‘한다’ 0.62, ‘안 한다’ 0.56, 우식경험치치지수(FT index)는 ‘한다’ 3.62, ‘안 한다’ 4.46, 우

Table 5. Oral health status by the practice application of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Division			Oral health status [†]			
			DT index	MT index	FT index	DMFT index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Dental floss	Yes(N=65)	1.72±2.48	0.83±1.60	5.17±3.69	7.72±4.78
		No(N=193)	1.78±2.24	0.48±1.17	4.15±3.49	6.40±3.78
		p-value	.828	.002*	.386	.057
	Interdental brush	Yes(N=26)	2.12±3.04	0.62±1.10	3.62±3.34	6.35±4.26
		No(N=234)	1.72±2.20	0.56±1.31	4.46±3.59	6.74±4.08
		p-value	.015*	.944	.564	.400
	Mouth rinse product	Yes(N=64)	2.0±2.60	0.39±1.08	4.34±3.36	6.73±4.22
		No(N=196)	1.68±2.18	0.62±1.35	4.38±3.64	6.69±4.06
		p-value	.243	.030*	.723	.800
	Tongue brush	Yes(N=37)	1.86±2.55	0.81±1.54	4.51±3.56	7.19±3.73
		No(N=223)	1.74±2.25	0.52±1.24	4.35±3.57	6.61±4.15
		p-value	.737	.181	.899	.500
	Powered brush	Yes(N=25)	2.28±2.82	0.40±0.96	4.68±3.56	7.36±5.00
		No(N=235)	1.70±2.22	0.58±1.32	4.34±3.57	6.63±3.99
		p-value	.256	.218	.874	.621
	Waterpik	Yes(N=4)	2.00±3.37	0.25±0.50	6.50±3.11	8.75±2.50
		No(N=256)	1.76±2.28	0.57±1.30	4.34±3.57	6.67±4.11
		p-value	.297	.302	.636	.260
Why not use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	You do not know the proper oral hygiene auxiliary supplies(N=108)		2.06±2.77	0.67±1.37	4.31±3.49	7.05±4.50
	Perhaps because of discomfort(N=126)		1.56±1.87	0.45±1.14	4.38±3.49	6.40±3.67
	Difficult and expensive to purchase(N=8)		2.12±2.59	0.50±1.41	2.13±1.64	4.75±2.50
	We do not have the effect(N=11)		1.82±1.25	0.55±1.81	4.45±4.41	6.82±4.26
	It is not recommended(N=7)		0.14±0.38	1.14±1.57	8.14±3.98	9.43±4.35
	The others(N=1)		0.0±0.00	0.00±0.00	0.00±0.00	0.00±0.00
	p-value		.210	.665	.026**	.104

† : M±S,D

* p-value is calculated with t-test (p<.05)

** p-value is calculated with one way ANOVA(p<.05)

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는 ‘한다’ 6.35 ‘안 한다’ 6.7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양치용액을 사용하는가에서 우식경험상실지수(MT index)는 ‘한다’ 0.39, ‘안 한다’ 0.62로 ‘안 한다’

가 높게 나타났고(p<.05), 우식지수(DT index)는 ‘한다’ 2.0, ‘안 한다’ 1.68, 우식경험치치지수(FT index)는 ‘한다’ 4.34, ‘안 한다’ 4.38,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는 ‘한다’ 6.73 ‘안 한다’ 6.69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우식경험치지수(FT index)는 ‘치과에서 권장하지 않아서’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4.15,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4.38, ‘적절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몰라서’ 4.31, ‘구입하기 어렵고 비싸서’ 2.13, ‘기타’ 0.00순으로 나타났다($p < .05$).

4. 총괄 및 고안

치위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상실습 교육 중 치면세마실습실은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소일 뿐 아니라 치석제거 대상자에게 구강건강증진행위와 구강위생에 대한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¹¹⁾. 따라서 효과적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구강보건교육과 지식 및 기술을 겸비한 치과위생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¹⁰⁾. 뿐만 아니라 환자의 구강상태에 알맞은 잇솔질 및 구강위생보조용품 선택과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치아우식증은 인류에서 가장 빈발하는 만성질환으로 초기에 예방하거나 초기 발견 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실습실 내원환자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유무와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에서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는 남자 6.03, 여자 6.95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김 등¹¹⁾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에서 남자 10.4, 여자 13.0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은 다르지만 신과 한¹²⁾의 화성시 중학생의 우식경험영구치지수(DMFT index)에서 남학생 6.2, 여학생 8.0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에서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순위는 치실이 65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구강양치용액 64명(24.5%), 혀 세척기 37명(14.2%), 치간칫솔 26명(10.0%), 전동칫솔 25명(9.6%), 워터픽 4명(1.5%)순으로 나타나 정과 박¹³⁾의 전동칫솔 38명(48.4%), 구강양

치용액(39.0%), 치실(31.7%), 치간칫솔(8.5%), 워터픽(0.0%)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며, 김¹⁰⁾의 양치용액 43명(37.1%), 치실 23명(19.8%), 이쭉시개 21명(18.1%), 전동칫솔 14명(12.1%), 치간칫솔 6명(5.2%), 혀 세척기 3명(2.6%), 치은마사지 0(0.0%)의 결과와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구강건강을 위해 치실과 치간칫솔 사용이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박¹⁴⁾의 보건계열과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 및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연구에서 구강양치용액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타난 연구결과와 박과 임¹⁵⁾의 선행연구와도 다르게 나타났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남자는 ‘적절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몰라서’가 39명(52.7%), 여자는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99명(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을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령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에 대해 만 3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만 20세 미만이 ‘적절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몰라서’, 만 20~30세와 만 30세 이상이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 등¹⁶⁾의 연구결과에서 서울시민의 99.3%가 가정구강보건행위로 잇솔질을 하고 있었으나, 이쭉시개를 제외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¹⁷⁾은 한국인의 구강보건실태를 조사 검토하고, 평균일인당 매일 잇솔질 횟수가 증가되고 있으나 치아우식 경험정도 역시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포괄적인 예방대책과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 등¹⁸⁾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기 위해 구강환경관리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서¹⁹⁾는 구강위생보조용품에 대한 인지도와 사용률이 낮은 것으로 검토되어 구강보건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 환자 특성에 적합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선정하고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소개하고 사

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사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실습실 내원환자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유무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에 관해 조사한 결과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구강위생보조용품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 및 그로 인한 효과를 충분히 교육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강위생보조품을 소개하여 올바른 구강건강관리행위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추후에 구체적이고 보완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실습실 내원환자를 대상으로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유무와 구강건강상태와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설문조사와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성별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는 우식경험상실지수(MT index)는 남자 0.78, 여자 0.48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p < .05$). 우식경험치치지수(FT index)는 남자 3.50, 여자 4.72로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p < .05$).
2.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실태는 구강위생보조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남자는 '적절한 구강위생보조품을 몰라서'가 39명(52.7%), 여자는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99명(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 < .05$).
3. 연령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실태는 구강위생보조용품인 치간칫솔 '사용은 사용한다'가 만 30세 이상에서 10명(18.5%), 만 20~30세 16명(8.2%), 만 20세 미만 0명(0.0%)순으로 나타났으며, '안 한다'가 만 20세 미만 9명(100.0%), 만 20~30세 180명(91.8%), 만 30세 이상에서 42명(79.6%)순으로 나타났다($p < .05$). 구강위생보조용품인 전동칫솔은 '사용한다'가 만 30세 이상에서 10명(18.5%), 만 20~30세 15명(7.7%), 만 20세 미만 0명(0.0%)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안 한다'가 만 20세 미만 9명(100.0%), 만

20~30세 181명(92.3%), 만 30세 이상 43명(79.6%)순으로 나타났다($p < .05$).

4.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에 따른 구강건강상태는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에 관한 항목 중 치실, 치간칫솔, 구강양치용액을 사용하는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치실을 사용하는가에서 우식경험상실지수(MT index)는 '한다' 0.83, '안 한다' 0.48로 '한다'가 높게 나타났고, 치간칫솔을 사용하는가에서 우식지수(DT index)는 '한다' 2.12, '안 한다' 1.72로 '한다'가 높았으며($p < .05$), 구강양치용액을 사용하는가에서 우식경험상실지수(MT index)는 '한다' 0.39, '안 한다' 0.62로 '안 한다'가 높게 나타났다($p < .05$). 구강위생보조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우식경험치치지수(FT index)는 '치과에서 권장하지 않아서'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4.15, '사용이 불편하고 귀찮아서' 4.38, '적절한 구강위생보조품을 몰라서' 4.31, '구입하기 어렵고 비싸서' 2.13, '기타' 0.00순으로 나타났다($p < .05$).

본 연구결과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이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그로 인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강위생보조품을 소개하여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6. 참고문헌

1. 김설희, 임선아, 박수정, 김동기. 구강건강영향지수를 이용한 삶의 질과 관련된 구강건강평가.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4;28(4):559-569.
2. Harris DM. Health protective behavior: An exploratory study. JHSB 1979;20:17.
3. 최정수, 정세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4. 정세환, 최정수, 김미숙. 우리나라 성인의 구강보건 지식과 견해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특별호 2000;24-25.
5. 김종배, 김광수, 김영희 외 4인. 공중구강보건학개론. 3판. 서울:고문사; 2008:119-123.
6. 김종배. 임상예방치학. 3판. 서울:고문사;2008:85-159.
7. Tanni DQ. Periodontal awareness and knowledge, and pattern of dental attendance among adults in Jordan. Int Dent K 2002;52(2):94-98.
8. 이호연. 건강증진모형을 이용한 구강건강증진행위 관련 요인 분석[석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2001.
9. 권미영. 치과 내원환자들의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4):219-228.
10. 김수경. 치과병·의원 내원환자의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식도 및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2;2(2):95-103.
11. 김응권, 임순환, 박미영. 치면세마실습 대상자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9;9(3):287-294.
12. 신명숙, 한지형. 화성시 중학생의 구강 건강 실태, 인식 및 치과 치료에 관한 개별 반응 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08;8(2):81-87.
13. 정미희, 박미영.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성인들의 구강건강관리실태 및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2007;7(2):73-79.
14. 박미영. 보건계열과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 및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연구. 일간 치과연구 2005;58(1):91-99.
15. 박미영, 임미희. 치위생과의 일부 보건계열과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실태 및 지식에 관한 비교연구. 월간치과연구 2005;58(6):69-78.
16. 이영혜, 문혁수, 백대일, 김종배. 서울특별시 가정구강보건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0;24(3):239-257.
17. 백대일. 한국인의 치아우식예방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3;17(1):1-12.
18.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진보형, 송연희. 구강환경 관리용품의 선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2;16(2):493-504.
19. 서은주.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단국대학교 대학원;2001.